

“비조합원 앞세운 조합원 폭언·폭행 용서 없다”

자동차판매연대대회 기아차 태평역대리점 규탄대회 열어... “노조 탄압용 해고, 직장 괴롭힘 엄격히 대처”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자동차판매 연대대회가 기아자동차 태평역대리점 대리점주와 비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서울지부와 자동차판매연대회는 11월 6일 경기도 성남시 기아차 태평역 대리점 앞에서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대회 기아차 태평역대리점 규탄대회’를 열었다.

기아차 태평역 대리점 열여섯 명의 노동자 가운데 두 명의 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비조합원 직원들은 두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요구하며 폭언과 폭행을 퍼부었다. 조합원들은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비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들어서 현대기아차 원청이 대리점을 폐쇄하고 고용불안이 온다는 논리로 금속노조 조합원을 괴롭혔다.

김도현 노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기아차 태평역 대리점은 현

범이 보장하는 노조 할 권리를 짓밟고, 비조합원을 사주해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회장의 멱살을 잡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우리가 나서서 판매대리점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바꾸겠다. 같이 행동하지 못할 거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판매연대대회는 조합원 대상 부당해고와 직장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영 지회장은 “퇴직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소장 눈 밖에 나면 해고당하는 상황을 바꾸려 노조를 만들었다”라며 “피해 조합원은 목숨 걸고 이 같은 상황을 바꾸겠다고 노조 간부까지 맡은 조합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법원이 판매대리점 영업사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했다. 대리점주는 즉시 교섭 사실을 공고하고 조합원 위협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판매연대대회는 조합

원들을 탄압하면 두고 보지 않는다. 동료와 함께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피해 조합원은 부당노동행위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모성민 서울지부 대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할 권리를 행사하다 민던 동료와 선배가 적이 됐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30%의 대우를 받는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모성민 대의원은 “법원이 우리를 노조법을 적용하는 노동자로 인정했고, 모든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는데 어떤 방해 공작과 음해도 두렵지 않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판매연대대회는 폭언, 폭행에 가담한 기아차 태평역대리점주와 소속 비조합원 여덟 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벌의 노조파괴 8년, 이제 끝내자”

법원, 현대차그룹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재판 재개 ... “현대차 자본은 범죄를 자백하라”

오는 11월 20일 다시 여는 현대자동차그룹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 재판을 앞두고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유성범대위)와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이하 재벌특위), 금속노조가 현대차 재벌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유성범대위와 재벌특위는 11월 7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 파괴범 현대차 재벌 규탄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조파괴 진원지인 현대차 재벌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으면 노조파괴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노조 파괴범 현대차 재벌을 엄중히 처벌하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상은 변호사는 현대차 재판 경과를 보고하며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를 파괴한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현대차그룹을 기소했다. 현대차 자본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 재판을 1년이나 연기했다”라고 규탄했다. 김



상은 변호사는 “현대차 자본은 이번 재판에서 노조파괴 범죄를 자백하라”라고 촉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규탄 발언에서 “많은 사람이 유성기업 문제가 해결됐다고 알고 있지만 노조파괴 우두머리 현대차 재벌은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 가해행위 중단과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 중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정훈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지난 11월 2일 유시영 회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지회장은 “노조파괴 8년 동안 창조컨설팅과 변호사에 지급한 돈은 과연 어디서 나왔겠는가? 유성노동자들은 반드시 정몽구와 유시영을 법정에 세워 심판하겠다. 사범부가 현대차 노조파괴 범죄를 어떻게 재판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남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파괴범 현대차 재벌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지 못해 공소시효 만료 사흘을 앞두고 현대차그룹과 임직원을 노조파괴 혐의로 기소했다. 현대차그룹은 오히려 노조법 양벌규정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에 대한 재판을 중단했고 1년도 더 지난 오는 11월 20일 현대차그룹 임직원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포스코 진짜 개혁, 진짜 노동자와 하자”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 혁신 의견 발표... “포스코 혁신은 민주노조 인정에서 시작”

포스코 설립 이래 최초로 원·하청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포스코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포스코 노동자들은 포스코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혁신 과제로 ‘서열 중심의 군사 기업문화’를 꼽았다. ▲비자금 조성, 경영비리 자원외교 ▲직원 사찰과 감시와 통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속노조는 11월 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진짜 개혁은 노동자와 함께, 포스코 혁신 원·하청 노동자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11월 5일 하루 동안 포

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포스코 성장을 위한 과제와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노동자 1,06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포스코 노동자들은 ▲열린 경영과 투명 회계 ▲수평의 동료 관계와 창의와 자율성이 숨 쉬는 현장 ▲갑질 제로, 살맛 나는 일터 ▲노동자 생명과 안전 존중 현장 ▲인권 존중 포스코 ▲간접고용 비정규직 없는 직장 등을 포스코 50년 미래를 위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노조는 “포스코의 진정한 개혁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

동자의 권리를 실질로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11월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모두 함께, 차별 없이, 최고의 성과를 만든다’라고 강조하며 100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관해 노조는 “포스코 자본은 ‘법이 보장한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금속노조의 대화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다. 포스코 개혁은 노동자 진짜 대표인 민주노조와 함께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